



9면

무주군, 적상산성 복원사업 '시동'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음 3월 19일) 제2769호

대표전화 (063)288-9700



환하게 웃는 전주국제영화제 사회자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배우 박하선과 권해효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준공 '눈앞'

내달 중 완공 내년까지 193억원 투자 시험장비 50종 구축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각종 공인시험 및 인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센터(이하 센터)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인근에 5월 중 완공되면, 2022년까지 국비 80억원을 포함, 총 193억원을 투자해 전용공간과 공인시험 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 50종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제품의 공인시험 및 평가·인증에 애로를 호소해왔으며, 이를 지원할 센터 건립 필요성이 절출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센터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도내에서 공인시험과 KS, KC, 성능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시험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센터를 통해 탄소 복합재를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전기·기계·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공인시험 평가가 가능하다.

이로써 탄소복합재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진흥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각각 탄소소재·부품과 완제품을 맡아 기업 지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탄소복합재 국산기술 향상을 위해 항공·자동차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탄소 소재·요소 부품에 대한 공인시험 등 개발단계의 핵심적인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운영한다.

연구원은 탄소소재를 적용한 완제품에 대한 강도·환경(온도 습도), 진동 시험 및 전기적 특성 등의 시험평가에 대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찬준 도 탄소융복합과장은 "이번 센터 구축으로 도내 탄소산업 생태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며 "탄소소기업의 시험평가와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구원과 협의해 바꾸어 사업 활성화, 시험 비용 할인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장기 SOC 반영 '사활'

송하진 도지사 국토부 방문·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최훈 행정부지사, 기재부 찾아 전북 건의사업 반영 요청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27일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어, 28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이 국가계획 반영 되도록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이은 송 지사의 홍보에 이어, 29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비룡을 이어받아,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예산 기한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최훈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도에서 요청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부안 변신변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도내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일괄예타에 통과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이울러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를 잇는 총연장 128.1km의 4차선 고속도로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처럼 전북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앞으로 예정된 SOC 국가 중장기계획과 정부 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총력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배려풀 전복' ... '여휴(女休)로움' 개소

전북도청 여직원 쉼터... 도 공무원노조 노사 합심 '결실'
직원들 간 소통 공간 활용...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

제7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송상재 위원장 이하 전복노조)은 노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배려풀(Full) 전북' 사업의 일환으로, 여직원 전용 쉼터인 '여휴(女休)로움' 개소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청 6층 전복노조 사무실 옆편에 마련된 여성전용 쉼터 개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상재 전복노조위원장과 여성 직원들이 참석해 노사가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휴(女休)로움' 휴게실 설치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들과 임신부의 부족한 휴식공간에 대한 노조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노조는 현 노조사무실 공간의 질반을 제공하고, 사측은 휴게실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등을 설치 구입하는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해 만든 공간으로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쉼터에는 건강차, 안마의자 및 소파 그리고 교양용 도서 등을 마련했다. 임신직원이나 몸이 불편한 여직원들에게 짧게나마 휴식 및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직원들 간 소통의 공간



전북도청 6층 전복노조 사무실 옆편에 마련된 여성전용 쉼터 개소식이 29일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송상재 전복노조위원장, 여성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활용한 계획이다.

또한 임신부와 위킹맘을 위해 ▲여성배려 주차공간의 진정성 있는 배려문화 정착, ▲공공기관 내 출산과 육아 장려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등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배려풀 전복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해 다른 공공기관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상재 전복노조위원장은 "도청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남성 휴게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며 "특히, 도청내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원 등을 확대해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까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토지 임야 상가 농가주택

부동산의 모든 것

무진장 부동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29
T. 063-433-6842
대표: 김인식
M. 010-2291-8990

